내츄럴엔도텍, 보건산업기술 대상 수상

내츄럴엔도텍(대표 김재수)은 12월11일 개최되는 2008 보건산업기술대상 시상식에서는 보건산업진흥대상을 수상한다.

내츄럴엔도텍은 바이오벤처 기업으로 식물성 여성호르몬 FGF271(미국 수출용 EstroG-100)을 연구 개발했는데, 천연 생약재인 백하수오, 속단 등을 주원료로 추출했다.

개발한 식물성 여성호르몬은 수차례의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거쳐 성균관대 의대 삼성제일병원에서 1년간 무작위 이중맹검 인체시험을 실시한 결과 위약군 대비 갱년기 증상이 5배 개선되고, 성장호르몬 농도, 골대사 지표, 대퇴골 경부 골밀도 등이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누적 판매량이 약 176만병 정도에 달하며 해외 메이저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ountry Life Vitamins, Life Extension, Jarrow Forumula, Vitamin Research Products 등 4사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세계 1위, 2위 기업으로부터 조만간 구매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8/12/10>